

한국 다방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 DA-BANG Culture

김석수*/ Kim, Suk-Su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s that have happened to Korea DA-BANG(tea-room). This survey was carried out from 1876 to 1997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Korea DA-BANGS in Seoul.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 1) DA-BANG came into being from Koryo ages and more DA-BANGS from 1920's.
- 2) DA-BANG has changed in the following order : GAEWHA DA-BANG(that were used to meet, communicate and negotiate foreigners when our country was opening ports), MUNWHA DA-BANG(that were used cultural space ,for example, exhibition, display

etc.), SEANGWHAL DA-BANG(the place that used a part of living space ; meeting friends to make appointment, etc.), SANGUB DA-BANG(commercial tea-room ; the place that makes money.)

3) Considering early MUNWHA DA-BANG, we can regard the beginning of Korea interior architecture as 1920's.

4) The decline of DA-BANG is due to the increase of vending machine, expensive tea, costly rent, employee's dear wages and customer's needs that pursues westernization and convenient life as well as the mood of more comfortable tea-room(for example, fresh air, agreeable mood etc.).

키워드 : 다방, 다방사, 커피숍, 실내건축사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의 실내건축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0년대의 산업화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약 1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실내건축은 어떠한 확립된 디자인 계획론이나 철학 및 이론정립의 미비 등 다소 혼성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한 역사적 고찰의 부족과 생활과의 대응이 아닌 피상적인 관심이나, 혹은 신선한 충격에 대한 강박관념 등의 표피적인 표현¹⁾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기 근대건축기(1876~1910)²⁾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실내건축의 여명이라 할 수 있는 해방직후부터 붐이 일기 시작했던 다방의 변천과정을 생활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사적으로 살피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7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커피숍의 양태도 다방문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한국 실내건축사의 연대 설정에 관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1876년부터 1997년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주로 서울의 다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일간지, 각종 저널, 논문 및 연구 보고서, 서적, 텔레비전, 영화 등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들과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차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이 자료를 근거로 몇 개의 특징적인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층별 샘플링을 통하여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의 유래와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다. 특히 전체적인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상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 한 다방문화 연대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방의 구체적인 실내건축적 특성에 관한 것은 비교·분석하지 않았으며, 주로 시대적인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다방과 관련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수집된 자료가 개인적이며, 구체적으로 실내

* 정회원, 동해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1)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200~201

2)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2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방 및 커피숍의 실내건축적 연구를 위한 선결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다방의 역사

2-1. 다방의 유래

차(茶)가 인류에 의해 발견되면서 처음에는 음료수나 약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기호식품화하면서 취미생활화되었고, 그 후 다도(茶道)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³⁾

국내에서도 차를 마시는 습관은 신라 27대 선덕여왕때부터 있었다고 추정된다.⁴⁾

특히 고려시대 대부분의 국가적 행사에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이 「다방(茶房)」⁵⁾의 관원들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대부분 귀족층을 중심으로 다도가 유행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이조(吏曹)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으며 외국사신의 접대도 함께 맡았다. 특히 고려의 진다의식은 다례(茶禮)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며, 억불숭유정책으로 다방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사원을 중심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서민차원에서 다방은 없었으며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다도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손님 접대용으로 술을 많이 사용한 까닭에 다방 대신 술집이 발달하게 되었다.⁶⁾

지금과 같은 커피를 파는 다방은 17세기 유럽에서 사교장의 역할로 처음 나타나게 되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1882년 구미각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사신들에 의해 궁중에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하면서부터 최초의 「커피방」⁷⁾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00년 전후에는 무교동 입구에서 나무장사를 하던 프랑스인 브라이상(부래상)이 유객용으로 커피를 팔았다고 한다.⁸⁾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능과 형태를 갖춘 다방은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생겨났으며,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명동을 중심으로 60여 개소로 늘어났다.

그 후 1953년 서울 수복후 도시재건과 상가의 치장품 등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 1,041개소, 1977년에 3,35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1987년에는 서울 시내 다방수가 9,177개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3

년에는 6천여개소로 격감하는 등 현재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7년 2월에는 「대한다방업중앙회」가 「대한휴게실업중앙회」로 협회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커피가 개화기 외교사절을 통해 유행되기 시작한지 약 1세기만에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영업형태로 한때 서민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다방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2-2. 다방관련 용어

1) 다방(茶房)

처음의 다방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다사(茶事)와 술·채소·과일·약 등의 일을 주관하던 관사(官司)의 하나였다. 주된 임무는 조정의 다례(茶禮)를 거행하는 것이었으며 그 관리도 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이후에는 '실내에 앉을 자리를 갖추어 놓고 여러 가지 차 또는 음료수를 파는 곳'으로 초기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나, 차츰 경제활동상의 여러 가지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대부분이 상업공간으로 변모해 있다. 또한 몇 해전 문화부가 「다방」을 「찻집」으로 변경하는가 하던¹⁰⁾, 「대한다방업중앙회」도 현재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다방」의 명칭은 사라지고 말았다.

2) 관련용어

(1) 차와 다방

다방의 명칭은 차방, 찻집, 다실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방에서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혼란은 차가 중국에서 온 말이면서도 막상 한자의 '茶'는 '다'라고 읽기 때문으로, 차를 가리키는 세계 각국의 말들은 '다' 계열과 '차' 계열의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차를 가리키는 중국말이 광둥어에서는 차(CHA)로, 복건어에서는 다(TAY)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둥에서 육로를 통해 차를 들여온 힌두, 페르샤, 아라비아, 러시아 그리고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차'라고 한다. 그러나 복건어의 항구 '아모이'의 해상루트로 차를 도입한 화란, 불란서, 독일, 그리고 영국은 TEA란 말처럼 '다' 계열¹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차와 다음의 사용비교

발음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사용예
「차」	순수한 우리말의 복합어 일 경우	차 한잔하자, 차순가락, 찻잎 등
「다」	한자의 복합어일 경우	다방, 다점, 다식판, 다반사 등
「차」와 「다」 둘다 발음	차라는 뜻이 소리화 되어 우리말로 굳어지면서 보편화된 경우	다례: 차례 다반: 차반, 다담상: 차 담상, 다중: 차중, 다모: 차모 등
어법에 어긋난 「차」	어법에는 어긋나지만 차라는 음으로 보편화된 경우	한국차, 국산차, 설록차, 홍차, 녹차, 말차, 엽차 등

국내의 경우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다'라고 하였으나¹²⁾, 조선시대 한글이 반포(1443년 12월)된 이후 한글을 채용하는 서민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1996, p.14
4) 경주 창림사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에 전문적으로 차를 마시는 장소인 「다연원(茶淵院)」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5) 다방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계서, p.37
7) 1882년 4월 6일 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
1882년 4월 21일 朝·英修好條規 조인
1882년 5월 15일 朝·獨修好條約 조인
커피가 처음 발견된지 1000여년 뒤이다.
8) 정도600년 서울재발견(62) 풍속도(8), 동아일보, 94년 4월 11일자
9) 이규태, 사양다방, 조선일보, 93년 7월 6일자

10) 조선일보, 92년 11월 20일자. 문화부는 일본어투나 지나친 외래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한자어 등 잘못된 식생활 관련용어를 조사하여 순화 발표했다.
11) 이어령, 차, 동아일보, 93년 6월 4일자, 이외에도 차를 가리키는 말로 알가(阿伽)라는 것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공용학술어로 데아(THEA)가 있다.
12) 계림유사에 보면 「茶曰茶」라고 하여 고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를 가리켜 '다'라 하였다고 한다.

사회에서는 「차」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표1>과 같이 차와 다음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모두 사용되고 있다.¹³⁾

특히 문화부가 이와같은 이유로 다방이라는 한자어보다는 한글인 찻집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양의 「살롱」이나 일본의 「깍다점」은 아직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다방의 명칭과 문화를 보존하고 살리려는 노력이 아쉽다.

(2)기타

다방과 관련한 용어는 <표2>와 같이 약 20여개가 정리되었다. 이 용어들 중 한자어는 대부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어휘들이며, 그외에는 개항후 생겨난 용어들로 당시 시대상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용어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다방'을 시작으로, 개화기 때의 깍다점, 모던걸 등과 60·70년대에는 도라지 위스키, 룸펜 등의 용어가 쓰였다.

<표 2> 다방 관련 용어

용어	해설
금봉어족	차한잔 시켜놓고 종일 죽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깍다점(喫茶店)	개화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다방명칭
다구(茶具)	차를 끓여 마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다도(茶道)	차를 마시는 일과 여러 가지 다사(多事)를 통하여 심신을 닦은 행위
다모(多母)	조선시대 탕기에 차를 끓여 파는 여자
다반사(茶飯事)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차려내는 찻상의 뜻이었으나, 마치 차를 마시는 일처럼 빈번하다는 뜻으로 쓰임
다비족	다방에서 물래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다소촌(茶所村)	고려시대 사원에서 차를 재배, 제조하기 위한 곳
다시(茶時)	조선시대 사헌부의 관리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
다실(茶室)	다방의 다른 명칭으로 일본에서는 다섯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세 평 미만의 공간을 말함
다원(茶院)	고려시대 여행자 휴게소
다점(茶店)	고려시대 일반인들을 위한 차가게
다점(茶亭)	조선시대 궁중 연회시 주정(酒亭)과 나란히 놓였던 곳
도라지위스키	60·70년대의 국산 양주로 다방에서 팔던 술
레지	다방에서 차를 나르는 여자
룸펜	70년대 일지리가 없어서 다방이나 전전하던 사람
마담	다방을 관리·운영하는 여자로 가오마담, 유한(有關)마담, 계(契)마담 등 불림
모던걸(Modern Girl)	개화기 다방에서 차를 나르던 신식여성을 말함
오토맨(Auto Man)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줄인 말로 차를 배달하기 위해 고운한 사람
진다(進茶)	고려시대 주과사선이 열리기 전에 임금의 차를 명하면 차신이 차를 올리는 의식
차(茶)	차나무에서 딴 어린잎을 가공하여 만든 것
차례(茶禮)	설날, 추석날, 어른의 생일 때 등 차를 달여 올리는 것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명절 때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뜻함
찻집	문화부가 다방을 한글로 변경한 말
티켓	퇴폐적인 매춘행위를 일컬어 부르는 속어

또한 90년대에는 다비족, 오토맨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특히 '오토맨'¹⁴⁾은 농촌 다방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요즘농촌에서는 막걸리 대신 커피'¹⁵⁾를 내놓는다고 한다.

이 용어를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화다방기, 생활다방기, 상업다방

기로 각각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용어의 분류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화다방기	생활다방기	상업다방기
다방	다방	다방	다방	찻집
진다	다례	깍다점	도라지-	오토맨
다원	다정	모던걸	위스키	티켓
다소촌	다모	마담, 레지	룸펜	다비족
다정	다시	티, 룸	디스크-	
			자키	

①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연등회, 팔관회 등의 행사에 진다라는 의식이 있었다. 또한 여행자를 위한 휴게소를 다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차를 주로 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방이 왕족과 사대부들을 위한 곳이었다면 다원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곳으로 이때부터 차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②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진다' 의식이 '다례'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차츰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혼례에서 신부가 시부모와 조상들에게 배례할 때 손수 달인 차를 올렸고 제사와 명절 때 차례(茶禮)를 지냈다. 또한 궁중의 다방에는 관리를 두어 차를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각 관청 및 지방 관아에 까지 다모(茶母)를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생산이 늘지 않았으며 세공급납이 강요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인들은 차례에 술을 사용하였으며, 관아의 다모는 인삼탕, 쌍화탕 등을 달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으로서의 다방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차를 대신해 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③ 문화다방기

문화다방기의 다방은 술을 함께 팔았기 때문에 과거에 술을 마시던 곳이 그 형식에 있어서 근대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카페와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때는 일제치하에 있었으므로 다방의 명칭도 깍다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가지는 茶를 파는 깍다점이고, 한가지는 茶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깍다점이다. 전자는 대중적·개방적·세속적이며 분위기가 명랑하고, 좋은 레코드가 없는 대신 茶값이 싸고 사내아이들이 급사(給仕)를 하며 상인, 관리, 회사원 등이 대부분이다. 후자는 귀족적·폐쇄적·고답적(高踏的)이며, 다방안은 담배연기로 자욱하고 베토벤, 모차르트 등 고전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茶값은 비싸고 어여쁜 모던걸이 급사를 하고 예술가, 가두철인(街頭哲人), 미남자, 실업자, 전문대학생들'¹⁶⁾이 주고객이었다.

특히 당시의 카페는 "여러 가지 방면을 잘 참작한 근대적·관능적 욕망을 소비하는 장소"¹⁷⁾로 생각되어져 깍다점과는 구분되었으며, 이때부터 마담, 레지¹⁸⁾ 등의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3) 석용운, 한국다예, 도서출판 초의, 1996, pp.55~58

14) 조선일보, 93년 3월 12일자, 전남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중 이색적으로 서울의 '푸시맨'과 비교가 되는 신조어인 '오토맨'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15) 윤기현, '들밥 대신 빵, 막걸리 대신 커피', 마당, 1985년 11월, p.181

16) 현민,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년 6월, 4권 6호, pp.157~159

17) S·S생, 환락의 대전당 카페 -그 사회적 존재 성-, 신동아, 1932년 6월, 2권 6호, p.64

④ 생활다방기

생활다방기에는 국산 양주인 도라지위스키와 일자리가 없어서 다방이나 전전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롬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건달이라는 뜻의 이 말은 원래 부평초같은 신세로 사회적 지위를 잃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¹⁹⁾으로 당시의 시대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이때의 디스크 자키는 다방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⑤ 상업다방기

상업다방기에는 다방의 명칭이「찻집」과「휴게실」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오토댄, 다비족과 같은 새로운 용어도 생겨났다. 특히 농촌다방 문제와 아울러 '티켓'이라는 용어도 생겨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2-3. 다방문화의 시대구분

실내건축은 '어떠한 다른 매체보다도 문화발전속에 깊이 근거하는 수단이라는 점'²⁰⁾에서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방의 문화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근거로 각 시대를 구분하고, 그 주요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표 4> 시대구분

	박 흥	김정동	필 자
1876	개화기	개화건축기	개화다방기
1910			
1920		식민건축기	문화다방기
1930			
1940			
1950	현대	과도건축기	생활다방기
1960			
1970		현대	상업다방기
1980			
1990			

특히 한국 실내건축의 시대구분에 있어서 박흥은 6·25 전쟁과 휴전 등을 격계되는 1950년대까지를 개화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실내건축은 태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후 4·19의거와 5·16혁명 등을 거치며 제3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를 실내건축의 여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60년대 이후부터 현대적 의미의 실내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개항부터 1960년대까지를 근대로, 1960년대 이후를 현대로 보는 견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구분은 실내건축이 건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타당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한국 현대건축의 출발을 1960년대로 보고 있는 것과 '최초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1953년의 구반도호텔 커피숍이라는 견해 등은 이러한 구분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다방문화 연대표

연도	시대구분	주요다방명	시대상황	비고			
1876 1885 1889 1902	개화다방기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 거실 슈트워드호텔, 대불호텔의 다방 손탁호텔의 다방 청목당(靑木堂) 수월루의 다방 조선호텔의 다방	개항 위생청결법 시행 현일합방(1910) 3·1운동, 문화정책공표	우리 나라 다방의 선구(인현) 서울 최초의 호텔식 다방 당시 최고급 호텔 겸 다방			
1923 1927 1929 1933 1934 1935 1936 1938 1939?		문화다방기	후타미(二見) 금강산 카카듀 멕시코 재미(燕) 프리타는(연대?) 쓰루(鶴), 6·9, 무기(無) 반도호텔의 다방 뷰너스, 트로이카, 에리자, 미모사, 위, 황기로, 도루체, 명치제과(明治製菓), 아세아, 울림떡, 낙랑, 프린스, 밀랍 등 다방수 60여개소 브랜차, 리버티, 삼일, 에덴, 마뫼나, 남강, 마네르바, 오아시스, 고향, 라부름, 낙랑, 돌체, 갈채, 만년지, 서라벌, 자연장 등 밀다원(부산), 금강(부산) 구반도호텔의 커피숍 르네상스 동방실롱, 밀다원(서울) 혁림, 다방수 1,041개소	활동사진필름감염규칙 공포 경성방송국 방송개시 광주학생운동 축음기 레코드취체규정 제정 라디오 보급대수 111,836대 조선음악가협회 결성 해방 6·25 전쟁 휴전협정 댄스홀 7개소 허가 4·19의거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다방 화가, 사진자가 등의 합작품 (현라의 대전당 카페) 발표 진단학회 발기인 모임 (취미와 실내장식) 발표 (현대적 다방이란?) 발표 (경성 다방 성쇠기) 발표 인스턴트 커피 등장 최초의 실내건축 수복후 다방 붐		
1945 1949?			상업다방기	애플사물(조성철) 비전(전동훈) 열차다방 조선호텔커피숍 르 실랑스(조성철) 아리스, 기호다방, 귀거래	5·16 혁명 제3공화국 다방·요정에 영수증복권제 실시 협정요금 급증, 커피값 40원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 하파족 TV출연 금지, FM 개국(71) 서울특별시 도상변경계획 확정발표	그린양화점 현상공모 살롱, 식당간 등으로 불림 실내건축이 본격화 됨 현대다방업종영향 발족 70년대 다방 전성시대 무고 및 노동지구 재개발추진	
1961 1963 1965 1966 1967 1968 1969 1972 1973 1979?				생활다방기	거목(손석진) 다방수 3,359개소 늘봄(손석진) 다방수 7,026개소 귀천 다방수 9,157개소 다방수 8,341개소 다방수 7,079개소 다방수 6천여 개소 비호하우스	하기지역 제한 해제 조치 아리통금 전면해제(82), 삼야방 경범죄처벌법 제1조3항 신설 강남일대 퇴폐(황리안스) 단속 음·면지역 다방 허가 제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3항 삭제 문화부 다방을 첫짐으로 명칭변경 문인정부 출범	다방 수 급증하기 시작함 '한국인테리어디자인협회', 80년대 벽돌유행 '인테리어, 저발전' 르네상스 예술의 전당에 전시 다방을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차별금지, 티켓제 단속 다방을 휴게실로 변경
1975 1976 1977 1979 1980 1983 1985 1986 1987 1988 1992 1993 1994 1997					상업다방기	비호하우스	

그러나 1950년대 이전의 실내건축이 비록 비전문가들에 의한 것이었고, 「실내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이라는 용어자체도 없었다고 하지만 다음의 몇몇 예를 들어 실제적인 한국 실내건축의 초기 연대를 훨씬 그 이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위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다방은 카카듀로 이경손²¹⁾에 의해 1927년에 문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서춘의 "상품진열법과 광고 이용"²²⁾이라는 글에서 '래 조선키 진열법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표된 '상업지식'인 셈이다.

18)박갑천, 재미있는 어원이야기, 을유문화사, 1996, p.92~94, 레지의 어원에 관하여는 두가지설이 있다. 첫째는, 레이디(Lady)→레디→레지로 변했다는 설과 레지스터(Register)→레지로 줄었다는 설이 있다.
19)황철수설, 동아일보, 94년 3월 12일자
20)박흥, 전제서, p.80

21)우리 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으로 <춘희>, <장한몽> 등의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 김윤한, 안중화 등과 함께 조선영화예술협회를 결성하였다. 특히 다방에서 그가 직접 차를 끓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방명을 '까카추'나 '카카듀'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22)서춘, 상품진열법과 광고이용, 동광, 통권 제14호, 경성 동광사, 1927년 6월

둘째, 1929년 멕시코다방²³⁾의 의자와 테이블 등은 당시의 화가, 사진작가, 무대장치가 등의 합작으로 종합작품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최초의 근대적인 실내건축으로 생각된다.

셋째, 1935년 김영애의 "취미와 실내장식"²⁴⁾이란 글에서는 처음으로 '실내장식'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었다.

또한 1936년에는 최초의 실내건축 평론이 되는 김복진의 "종로 상가 진열장 품평"²⁵⁾이라는 글이 발표되었으며, 차츰 상업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실내건축의 역사는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항이후 커피와 함께 다방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1919년 3·1운동까지를 개화다방기로 분류하였으며, 1960년까지를 문화다방기로, 1975년 허가지역 제한 해제 조치를 계기로 급증한 시점까지를 생활다방기로, 그 이후는 상업다방기로 각각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구분은 다방의 성격 자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지 전체적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다방문화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화다방기를 시작으로 문화다방기, 생활다방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상업다방기로 대부분 변모해 있다.

3. 다방문화의 시대별 특성

3-1. 개화다방기(1876~1919)

개항이 되면서 국내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되었다. 새로운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의해 새로운 건축이 생겨났으며, 신부, 선교사, 외교관 등에 의한 실내장식과 수입된 가구들로 채워진 서양풍의 실내가 지배적이었다.²⁶⁾

당시 고종이 머물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러시아 공사관의 거실은 길게 늘어트린 커튼과 화려하게 장식된 벽과 바닥의 문양을 볼 수 있으며, 침대, 소파, 의자류 등은 재정 러시아의 수입 가구들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항지를 중심으로 생겨난 인천의 대불호텔과 수트워드호텔의 부속다방이 근대적인 다방으로서는 처음이다. 또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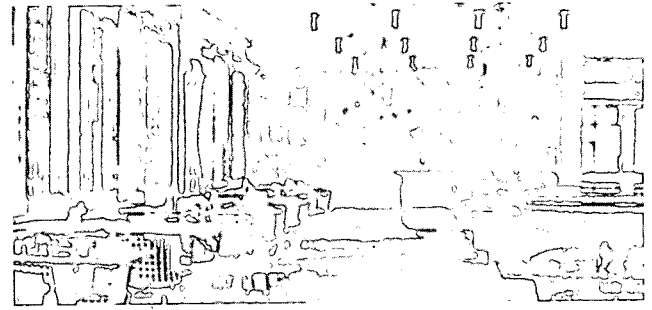


(그림1)고종이 거처하던 러시아 공사관(1885)

23) 종로 YMCA회관 근처로 배우 김용규와 심영이 주인이었다.

24) 김영애, 취미와 실내장식, 신가정, 29호, 1935년 5월

25) 김복진, 종로 상가 진열장 품평, 중앙, 4권 1호, 1936년 1월. 이외에 1938년에 현민의 "현대적 다방이란?", 노다객의 "경성 다방 성쇠기" 등이 발표되었다.



(그림2) 조선호텔의 다방(1914)

동 외국인촌에 세워진 손탁호텔의 1층에 서울 최초의 호텔식 다방이 있었으며,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시 최고급이었던 조선호텔의 다방이 있었다. 특히 실내는 3개의 아치 모양을 한 펜던트(Pendant) 조명과 커다란 창가로 가지런히 놓여진 의자와 테이블들을 볼 수 있으며, 호텔의 내부는 대부분 영국산물을 사용했다.

호텔다방외에도 일본인이 경영하던 '청목당'이라는 살롱과 광고 개천변에 '수일루'라는 목욕탕내에 커피를 파는 다방이 생겼으며,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곳을 사교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이시기의 다방은 주로 호텔문화와 함께 유입된 다방이어서, 실내도 대부분 양풍스타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때쯤에는 서양문물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이나 서구로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이 나름대로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다방이 본격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조건'²⁷⁾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3-2. 문화다방기(1919~1960)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정책을 공표하면서 부터 다방은 점차 늘기 시작하였고, 해방과 6·25 전쟁 등 극심한 혼란기를 겪게 된다. 또한 이때는 심각한 문화시설의 부족²⁸⁾으로, 다방이 차를 마시는 쉬는 장소 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다방은 해방과 휴전협정을 전후한 시기로 각각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3·1운동 이후부터 해방전까지로 라디오 보급대수가 1938년에는 10만대를 넘어서게 되고, 카페, 다방, 실내장식 등에 관한 글도 점차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다방인 카카듀와 실내건축과 관련한 타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멕시코다방이 문을 열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전문가인 이상²⁹⁾에 의해 제비(燕), 쓰루(鶴), 69, 무기(麥)가 개업했다. 그 중 69는 이상이 직접 실내를 시공한 것으로 전문가에 의한 다방의 시초가 되며, 제비(燕)를 전후하여 문화예술인들에 의한 다방이 차츰 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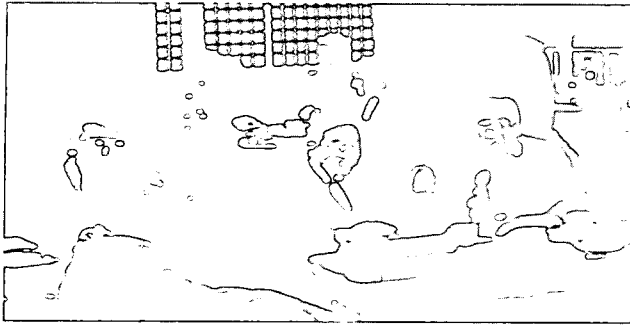
26)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1), 건축사 1987년 5월, p.40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개서, p.37

28) 이규태, <다방론>, 조선일보, 1986년 5월 9일, 가옥에서 공공공간이었던 사랑방을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없애버림으로써 혹심한 교제공간의 빈곤이 가중되었고, 국내의 다방문화가 발달하게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1910년 생으로 본명은 김해경이다. 1929년 경성공고건축과를 졸업한 후 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근무하였으며 1933년 각혈로 기수 직을 그만두었다.

시작하였다.



〈그림3〉 제비(燕)(1933)³⁰⁾

둘째, 해방 후부터 휴전협정까지로 해방직후 60여개소로 명동을 비롯한 변화기에 그 수가 늘기 시작하였다. 특히 봉선화, 예텐, 낙랑, 갈채, 모나리자, 자연장 등의 명동 다방들이 생겨났으며, 그림, 영화, 문학 등의 전시회 및 기념회, 추모회, 강습회 등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서울의 다방은 거의 폐업하게 되고, 부산의 금강, 밀다윈 다방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특히 부산 광복동에 있던 밀다윈다방은 당시 '피난문단'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많은 작품들이 이곳에서 구상되고 만들어졌다.

“다방 안은 밝았다. 동남쪽이 모두 유리창이요, 거기다 햇빛을 가리게 할 고층 건물이 그 곁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가운데는 커다란 드럼통 스토브가 열기를 뿜고 있고, 카운터 앞과 동북 구석에는 상록수가 한 그루씩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얼른 보아 한 스무 개나 뒹직한 테이블을 에워싸고 왕왕거리는 꿀벌떼는 거의 모두가 알 만한 얼굴들이었다.” 〈부산광복동의 밀다윈 다방(1950)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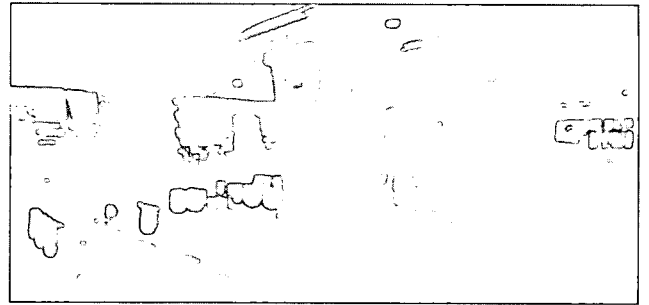
셋째, 휴전협정 이후부터 4·19의거와 5·16혁명 등을 겪는 시기로 수도개건을 위한 시가지와 상가의 치장 붐으로 다방이 활기를 띠게 되며, 무엇보다도 최초의 실내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반도호텔의 커피숍이 미국인 실내건축가인 Dehhan³²⁾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1951년 대구 향촌동에서 문을 연 르네상스는 휴전후 1954년 서울로 옮겨와 1986년 폐업하기까지 ‘싸구려 전축조차 흔치 않았던’ 시기부터 30여년간 고전문학감상실의 역할을 했다. 또한 1960년 4·19무렵 개업한 학림다방³³⁾은 1983년 헐리기까지 ‘문리대 제25강의실’로 불리워질 만큼 학생들의 토론의 장으로 당시 대학로의 대표적인 다방이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다방은 ‘개화기 모던걸(Modern Girl)의 서비스를 받으며 커피라는 신식 서양음료를 맛보던’³⁴⁾ 곳을 시작으로 음악을 즐기던 휴식의 장소로, 때로는 토론장, 집필실, 그림전시장, 영

화·문학·출판기념회가 열리던 문화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휴전직후 50년대에는 다방이 당시 사회문제였던 고등실업자의 온상 역할을 하여 사회적 지탄이 되기도 하였다.



〈그림4〉 고전문학감상실 르네상스(1954)

3-3. 생활다방기(1960~1975)

휴전후 ‘60년대 초를 시점으로 하는 산업화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개선은 실내건축을 필요로 하는 요소 즉 상업공간이나 전시공간 등의 수요를 서서히 증가’³⁵⁾ 시켰으며, 서울의 다방수도 천여개소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에는 대한다방업중앙회가 발족하게 되어 상업적으로 보다 조직화되면서, 70년대는 다방 전성시대를 맞게되어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다방은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작정 상경한 출신이 먼저 서울에 온 만득이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사이비 사장이 그물을 치고 거미처럼 붐을 고대하던 곳, 가정교사 광고를 낸 뒤 전화 오기를 기다리던 가난한 대학생들, 정치인을 자칭하는 건달들이 돈 안드는 엽차나 시켜놓고 레지나 마담의 구박과 눈치를 견디던 다방이었다. 반면 수상쩍은 유부남, 유부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서 부모가 눈발 팔아 보내준 돈으로 계집애들과 날마다 싸질러 다니는 날라리 대학생, 양가부모를 모시고 선을 보던 남녀들은 언제나 환영이었다. 메모판에 자신에게 온 쪽지가 보통 서너개 씩이나 되고, 들어오자마자 아무개 연락 왔느냐 묻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전화통부터 붙잡고 여기저기 부산하게 다이얼을 돌리던”³⁶⁾ 곳으로 특별한 사람들의 장소에서 대중적인 만남의 장소로 바뀐 생활공간이었다.

특히 그린양화점 현상공모와 제1회 국제무역박람회는 실내건축이 활기를 찾게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성렬, 전동훈 등의 전문인에 의해 설계된 르 실랑스, 아리스, 가회, 귀거래 다방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심정비계획에 다방 중심지였던 무교 및 다동지구 등 총 63개지구의 재개발³⁷⁾이 추진되고, 1975년 허가지역 제한해제 조치 등으로 대중적인 생활다방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30) 영화 「금홍야 금홍야」의 한 장면으로 객다점(喫茶店)이라고 쓴 간판과 함께 당시 다방의 실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1) 김동리, 밀다윈시대, 동아출판사, 1996년, p.428 '밀다윈은 광복동 로터리에서 시청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있는 이층 다방'이었으며, '서울서 온 문화인들은 모두 밀다방'에 모였다고 한다.

32)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제조명, 건축사 8811, pp.48~49, 'Norman R. Dehhan은 미국의 건축가로 AIA Chicago 지부장과 흥익대 건축과 강사를 지냈으며, 당시 경무대 건축고문이자 미군 공병대 소속이었다.'

33) 동송동 「학림다방」이중렬씨, 동아일보, 1997년 3월 15일자, 당시 치과병원 원을 하던 여의사 이양숙씨(84·미국 샌디에이고 거주)가 병원 바로 옆 건물을 사들여 개업했다.

34) [만물상] 다방의 추억들, 조선일보, 1997년 2월 18일자

35) 조구현, 실내건축의 현황과 개선, 공간, 1985년 10월, pp.132~134

36) 〈한마당〉 사라지는 다방, 국민일보, 1997년 2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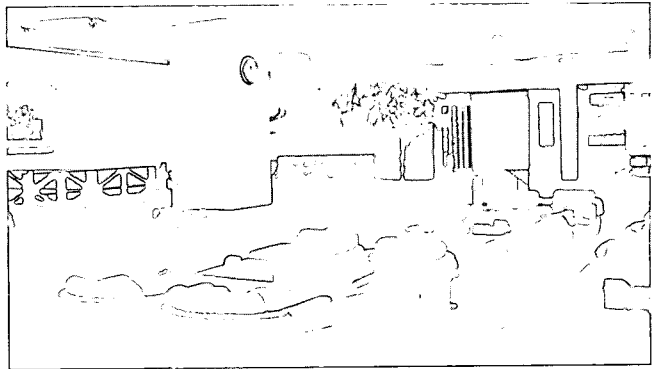
37) 서울특별시, 무교 및 다동지구 재개발사업 기초조사(기본계획), 1973년 12월

특히 60년대를 거치면서 다방의 주인도 지식인계층에서 상인계층으로 바뀌고, 레지, 카운터, 주방장, 디스크자키 뿐만 아니라 조명과 고급오디오 등을 갖춘 다방들도 생겨났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다방은 주 고객층이 일반대중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내부시설도 이전보다 대형화하여, 경영의 변모를 갖추게 되었고, 실내건축이 전문가들의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대부분의 손님은 분위기나 차맛보다는 상거래나 교제의 편의성 등으로 찾게되어 생활다방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5〉 1960년대의 다방



〈그림7〉 바흐하우스(1996)³⁸⁾

그러나 다방은 시대변천에 적응하기 위해 음악다방, 레이저 디스크 비디오 상영다방, 커피전문점 등으로 다양하게 걸모습을 바꾸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다방, 아침식사로 빵과 제과류 등을 파는 다방, 다방을 선거시 투표소로 제공하는 다방, 국가경축을 기념하여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다방 등 일반 대중문화와 관련한 생활문화다방의 이미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고려시대 국가기관의 하나로 출발하여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국내 다방의 역사를 개화기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의 다방은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근대적 의미의 다방은 개항직후인 개화기때 생겨나 192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관련 전문인들에 의한 최초의 다방은 1929년 멕시코다방이었으며, 국내 전문인에 의한 다방의 시초는 경성고공 건축과를 졸업한 이상의 '69' 다방(1935)이었다.

둘째, 한국의 다방문화는 서양의교사절을 통해 커피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개화다방(1876~1919), 문화다방(1919~1960), 생활다방(1960~1975), 상업다방(1975~현재)의 순으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 실내건축의 출발은 문화다방기초기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1920년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 다방문화의 쇠퇴원인은 커피 자동판매기의 증가, 다방 커피값의 인상, 건물임대료 및 종업원의 임금인상, 실내의 환경문제 등과 함께 서구감각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몇 해전 일본에서는 차문화를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철학, 미술공예, 건축, 문학, 차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가 발족되었다. 또한 일본의 차문화는 에도시대의 퇴폐적인 불명예를 씻고 일본 예술의 한 형태로서 다시 새로운 미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³⁹⁾ 국내의 경우에도 문화다방이나 생활다방의

3-4. 상업다방기(1975~현)

1975년 허가지역 제한 해제 조치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다방수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2년 야간통금의 해제로 생겨난 심야다방이나 중소도시 및 농촌의 '티켓다방'은 사회 문제화되면서 서울시내 다방수는 9천여개소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1979년에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가 발족하였으며, 1986년「인테리어」지의 간행을 시작으로 전문지가 간행되고, 외국의 서적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의 실내건축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등에 밀려 다방수는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커피 자동판매기의 증가, 값이 싸고 전문화된 커피숍의 등장, 서구적 감각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추세, 건물 임대료 및 임금인상, 실내환경문제 등으로 그 수가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2년 문화부가 고려시대부터 사용해오던 다방의 명칭을 찻집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1997년 「대한다방업 중앙회」도 「대한후계사업 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38) 바흐협회 회원들에 의해 1996년 12월 서초동에서 개업했다. 3천여장의 CD와 1억원대의 오디오를 갖추었으며, 기초음악강좌도 열린다.

39) 서현섭, 일본인파 에로스, 고려원, 1996년, pp.222~223

이미지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아쉽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 96.10.10, [서울대]「50년사」출간...대학풍속도 변천
- 96.12.18, [한국최초] (68)요리집
- 97.2.19, [화제] 다방서 「낭만」이 사라진다.
- 97.2.20, [여적] 다방

2. 국민일보

- 97.2.19, <한마당> 사라지는 다방

3. 동아일보

- 92.10.17, <황설수설>
- 94.4.11, [정도600년 서울재발견] (62) 풍속도(8)
- 95.6.12, [한국인의 초상14 작가들 사랑방, 변천사
- 97.1.21, [여기자노트] 김세원/카페에 앉아
- 97.2.9, [황설수설] 향수깃든 「다방」이름이 바뀐다
- 97.3.15, [사람과 화제] 동승동 「학림다방」이충렬씨

4. 서울경제

- 93.8.2, '다방서 아침식사' 직장인 세풍속

5. 서울신문

- 97.2.20, 외언내언-다방 애환

6. 조선일보

- 86.5.9, <이규태 코너> 다방론
- 93.7.6, <이규태 코너> 사양 다방
- 97.2.8, [만물상] 다방의 추억들

7. 중앙일보

- 95.2.7, <서울대 이모저모> 동승동 시절
- 96.10.27, 가수 20년 결산 공연 갖는 최백호
- 96.12.1, 원로 예인들, 대학로 카페서 친목모임
- 97.1.3, <나는 나다>70년대 '히식스'의 노장 김홍탁씨
- 97.1.10, 40대 '바흐협회' 회원들 서초동에 둥지
- 97.2.19, <분수대>다방의 세월
- 8. 김복진·안석주, 경성 각 상점 간판 품평회, 별건곤, 3호, 1927. 1
- 9. 서춘, 상품진열법과 광고 이용, 동광14호, 1927. 6
- 10. 木貝生, 카페의 종행과 학생군(群)의 출몰, 동방평론, 1권 2호, 1932. 5
- 11. SS생, 환락의 대전당 카페 - 그의 사회적 존재성-, 신동아 2권 6호, 1932. 6
- 12. 김영애, 취미와 실내장식, 신가정, 29호, 1935. 5
- 13. 김복진, 종로 상가 진열창 품평, 중앙 4권1호, 1936. 1
- 14. 김복진, 종로 상가 간판 품평기, 중앙 4권1호, 1936. 1
- 15. 한승인, 상점과 서비스, 조광, 16호, 1937. 2
- 16. 현민,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 6
- 17. 노다객, 경성 다방 성쇠기, 청색지, 1권 1호, 1938. 6
- 18. 무명, 경성 상점가로서의 본정(本町) 및 종로통의 개황, 경성상공회의소, 경제월보, 1939. 3
- 19. 최일송, 종로 팔 불건 오경, 조광, 1940. 12
- 20. 유홍태, 「빨당」에서 굶어 본 종로가의 신체제 풍경, 조광, 7권 1호, 1941. 1
- 21. 조춘생, 조선호텔의 진풍이경, 춘추, 2권 2호, 1941. 3
- 22. 春秋, 1941. 3
- 23. 김종원, 나의 「관체」문학시절-문인가산책-, 월간문학, 1975. 5
- 24. 박용구, 문예싸롱시절-문인가산책-, 월간문학, 1975. 7
- 25. 박치원, 월계다방시대-문인가산책-, 월간문학, 1975. 9
- 26. 이종환, 부산피난시절-문인가산책-, 월간문학, 1975. 8
- 27. 백향덕, 커피품미에 대한 연구, <살림본>, 1980. 2
- 28. 조성렬,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황과 과제, 디자인 포장(통권54호), 1981. 12
- 29. 박홍, 한국인테리어 디자인의 현황, 건축사, 1983. 2
- 30. 이종숙, 서울시내 다방 실내환경 : 공기 탁하고 더러워, 소비자, 1983. 3
- 31. 정태성, 커피한잔의 경제학, <마당>, 1984. 4

- 32. 윤제걸, 격동과 낭만의 한 세월, 그 다방, 그 노래 : 음악다방 육십년, 음악동아, 1984. 5
- 33. 조구현, 실내건축의 개선과 현황, 공간, 1985. 10
- 34. 윤기현, 들밥 대신 빵, 막걸리 대신 커피를, <마당>, 1985. 11
- 35. 박홍, 한국인테리어의 과거·현재·미래, 건축과 환경, 1988. 7
- 36. 조재선, 세계의 커피 소비현황과 전망, <식품산업>, 1989. 6
- 37. 박태진, 문단의 추억담②, 월간 문학공간, 1991. 10
- 38. 박태진, 문단의 추억담③, 월간 문학공간, 1991. 11 논문 및 연구보고서
- 39. 서울시, 무교 및 다동지구재개발사업기초조사 : 기본계획, 1973
- 40. 문화재관리국, 전통다도풍속조사, 1980
- 41. 김정동, 비전문지에서 찾아 본 개화건축론, 건축, 1982. 4
- 42. 남기성, 다방건물의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인천전문대논문집, 1988
- 43. 남기성, 다방건물의 탄산Gas 오염에 관한 연구, 인천전문대 논문집, 1989
- 44. 남기성, 다방내의 분진오염에 관한 연구, 인천전문대 논문집, 1990
- 45. 남기성, 다방내의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비교분석연구, 인천전문대논문집, 1991. 8
- 46.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47.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48. 노재학, 지하차방의 온열환경 쾌적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대전산업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49. 문일평, 다고사(茶故事), 호암전집2, 1939
- 50. 이봉구, 그리운 이름따라: 명동20년, 유신문화사, 1966
- 51. 이봉구, 명동 : 세월따라 바람따라, 삼중당, 1967
- 52. 이봉구, 명동비내리다, 강미문화사, 1978
- 5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600년사, 3·4·5권, 1981
- 54. 한국관광협회, 한국관광Hotel발전사, 1982
- 55. 조용만, 30년대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 56. 이만열, 한국사연표, 역민사, 1990
- 57. 이봉구, 명동, 그리운 사람들, 서울 일빛, 1992
- 58.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서울, 1992
- 59.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일신서적출판사, 1994
- 60. 이상·김유정, 날개/동백꽃, 동아출판사, 1995
- 61. 김동리, 율화의 - 밀다원시대, 동아출판사, 1996
- 62. 서울대, 서울대 50년사, 1996
- 63.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6
- 64. 이규태, 이규태코너 5-웃음의 한국학, 기린원, 1996
- 65. 석용운, 한국다예, 도서출판 초의, 1996
- 66. 서현설, 일본인과 에로스, 고려원, 1996
- 67. 박갑천, 재미있는 어원이야기, 을유문화사, 1996
- 6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1996
- 69. 김환기, 그림에 부치는 시(김환기 산문집), 지식산업사, 1977
- 70. 「꿈의 콘서트」, KBS2 밤 10:55, 94. 1. 10 - 다방에 얽힌 사연들
- 71. 김유진 감독, 「금홍아 금홍아」, 1995

<접수: 1997.10. 28>